

# “구례 수해 주민 두 번 물먹이나”

### 섬진강댐 방류 피해 ‘반토막 보상’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피해 115명 중앙환경조정위 이달말 조정 결정 주민들 보상 배제 우려 강력 반발

48% 짜리 ‘반토막 보상’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구례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이 이번에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에 대해 보상에서 배제될까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조정 결정에 따라 우선 보상하는 420명에서 제외된 1543명 중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자 115명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이달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다가는 피해 보상에서 배제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정부의 물관리 잘못으로 섬진강댐 물을 방류해 발생한 홍수피해를 보상하면서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이라고 배제 시키는 것은 국가의 댐관리 잘못을 수해민에게 전과 시키는 처사라며 다른 지역과 똑같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0조 제12조의규정에 의해 정하천구역으로서 국가가 하천의 유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



구례 수해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공평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척면 섬진강변에서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A(61)씨는 “홍수로 인해 과수원 3000여평이 물에 잠겨 수확을 전혀 하지 못했고 감나무마저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땅 소유주를 한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지도상에 금을 그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해놓고 선 하나로 보상의 가부를 결정하는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섬진강댐 방류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인 만큼 타 지역과 동일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당초 국토교통부 관리 소관이었으나 이번에 환경부로 이관 된 사항으로 구례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강하게 촉구했다”며 “중조위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과 14일 연이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 항의 시위를 하고 유역별로 각각 48~72%만 인정하는 조정위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폭넓은 배상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고흥군, 우주교육 테마파크 등 내년 사업 43개 발굴

### 정부 예산 확보에 초점

### 신규 사업 타당성 등 면밀 분석

고흥군이 새해 초부터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정부와 전남도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지역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2023년의 신규사업 발굴에 군청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모든 신규 사업은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굴사업마다 타당성 등 면밀 분석에 나서고 있다.

고흥군은 정하용 부군수 주재의 전 부서장 회의

를 열어 내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1차 발굴 사업들에 대해 정부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 등 중점 분석했다.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은 사업개요 및 사업필요성, 예상 재정사항, 건의내용 순으로 발표가 이뤄졌으며, 집단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로 발굴한 내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은 43건이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557억 원 중 내년도 정부예산 건의액은 3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주교육 테마파크 조성(459억) ▲고흥만 노을 별빛정원 조성(32억) ▲고흥문화원 원사 건립(50억) ▲녹동향 복촌선착장 조성(120억) ▲노후 상수도 정비(295억) ▲녹

동신항 해양체육공원 조성(40억) 등이다.

고흥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오는 5월까지 다수의 신규사업 발굴과 동시에 각 부처별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고 예산 지원 부처에 납득이 가도록 집요한 설득이 필요한 만큼 부서별 집중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며 “고흥군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공직자들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발굴 사업의 철저한 검토와 신규 사업 발굴 노력 등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광양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접수

### 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

광양시가 고령 운전자(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는다.

대리인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거동불편 등의 별도 사유 없이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 등 대리

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반납신청은 읍면동사무소, 광양경찰서, 광양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받는다.

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대리인 신청으로 면허증이 실효(취소)되면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지

급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면서 2019년 60명, 2020년 98명, 2021년 92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된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여수해경, 25일 문수동 신청사 시대 개막

### 24일까지 부서별 사무실 이전

여수해양경찰서가 전남대학교 여수 국동 캠퍼스 임시청사를 떠나 문수동 신청사로 이전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신청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부서별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25일부터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부지면적 8361㎡(2529평), 건축면적 6779㎡(205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

신청사의 외관 디자인은 ‘수호의 빛’이라는 주제로 어둠 속에서 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처럼 아름다운 물의 고향 여수의 해양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수해경은 신월동 소재 신월 출장소에 임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전 기간 민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신축청사 이전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돼 해양치안 서비스 확대로 국민 친화적 행정을 높여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보성 세계차엑스포 비대면 행사로 전환

###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열려

보성군은 2022 제10회 보성 세계차(茶)엑스포를 비대면 온택트 행사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성 세계차 엑스포 행사 기간은 오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다.

당초 보성군은 4월15일부터 4월21일까지 7일간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제 행사 규모의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른 국가의 참가 제약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 규모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했다.

특히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돼 행사 기간도 단축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재편성했다.

온택트로 개최하는 2022년 보성세계차엑스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개막식, 판매행사, 품평·경연, 수출상담



회, 체험·이벤트 행사로 채워진다. 실질적인 차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올해 하지 못했던 행사들은 내년을 위해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순천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점진적 상향

### 3년간 라→다→나 등급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개 등급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 등급을 부여받았다.

지난 2019년 라 등급을 받은 이후 2020년 다 등급, 2021년 나 등급을 받았다. 민선 7기 3년간 지속해서 등급이 상향되면서 순천시의 민원서비스 행정도 인정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민원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관,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 만족도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순천시는 평가에서 기관장의 민원행정 대외활

동,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민원실의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운영과 편의용품 비치 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는 공유 확산하고, 미흡한 분야는 교육과 민원컨설팅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순천시의 민원서비스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이너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물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